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 위기 공동대응”

광주시·대학 기획처장협의회 구성...협업 체계 구축 대학발전협력단 역할·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광주시와 지역 주요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을 살리는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중효 행정부시장, 운영덕 국회의원, 지역 17개 대학 기획처장, 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발전협력단 회의 열고 ‘광주시·대학 기획처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학발전협력단은 지난 5월12일 신입생 미달 사태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와 대학, 시교

육청, 기업, 유관기관을 포함한 지역 혁신주체 간 협업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협업 체계 구축의 첫 출발점으로 시와 교육청, 대학 등은 정기 또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청년 인구 유출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지방대학의 여건을 공유하고, 대학발전협력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사립대의 열악



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현실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문제점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책 강구 ▲지방간 연대를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불균형 해소 ▲지방정부 주도 대학 간 협업·협력 가능한 사업 발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

성화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운영덕 의원은 “전국 첫 사례인 대학발전협력단 발족이 지역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면 기획처장 협의회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장본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외국인 음식관광 연계

관광공사 국제이벤트 선정...음식·해양·문화·레저 융합 체험 추진

전라남도는 지역이벤트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연계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여수에서 열

리는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연계해 외국인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SNS기자를 대상으로 음식·해양·문화·생태·레저를 융합한 체험행사를 추진한다.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만

여수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전한 방역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추진된다.

또한 관람객과 소통을 위해 ‘추수제’ 마당극으로 추진하는 문화공연과 남도 푸드코트, 남도음식 미디어전시,

신달인 요리경연대회 등을 기획해 남도의 맛과 멋이 묻어나는 행사로 연출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국제이벤트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 함께 전남 음식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17년째 ‘친환경 배’ 한 길만 걷는 ‘허정철 명인’



영암서 11년째 유기농 배 재배 연간 30t 생산 2억여 원 매출

친환경농업 베테랑인 허 명인은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다 유기농 배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4년부터 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재배가 까다로운 유기농배 재배를 실천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부분은 토양관리다.

허 명인은 가능성 세라믹, 게르마늄 등 50여 물질에 유효미생물을 직접 배양해 토양에 뿌려주고 녹비작물까지 재배하며 땅심을 높인다. 특히 배의 경우 태풍이나 병충해 피해가 잦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이나 걸린다. 재배 기

간도 8개월 이상으로 벼 등 다른 작물에 비해 3-6개월이 더 길어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이다.

유기 과수 재배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종해 관리다. 허 명인은 예방을 중요시한다. 고등어, 장어 등 생선과 미나리, 썩 등 야채를 혼합해 직접 만든 영양제를 배나무에 뿌리고 원적외선까지 방사해 배의 면역력을 높인다.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해충은 교미교란제, 포획기를 설치해 방제한다. 유효미생물을 지속적으로 토양·엽면 시비를 해줘 면역력 강한 배를 생산하는 것이 허 명인의 노하우다.

현재 1.7ha 규모의 농원에서 유기농 배를 30t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직거래, 학교급식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가격은 5kg 한 상자에 8만원으로, 연간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허 명인은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 생산 중인 유기농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과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과 인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남도장터·백화점 입점 등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본 사 인 사

박선미 명

사회부 기자

2021년 7월 5일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기	240,833원	414,000원	1.71배
4분기	125,531원	217,000원	1.73배
3분기	79,147원	138,000원	1.74배
2분기	48,103원	84,000원	1.75배
1분기	26,697원	47,000원	1.76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Penal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동구, 공중위생업소 564곳 서비스 평가

광주 동구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향상을 위해 2021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이음업 56곳·미음업 508곳이다. 평가 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설현황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26개다.

동구는 평가를 바탕으로 최우수업소(녹색 등급)·우수업소(황색 등급)·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 등급)로 구분해 오는 11월 동구 누리집에 발표한다.

서구, 광주 유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광주 서구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선정돼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아이스팩 세척 시설을 마련하고 장애인용 채용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펼친다.

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활용 가능 여부로 선별·분류한 뒤 조음파 세척, 건조, 냉동, 검수 등을 통해 인근 전통시장 2곳에 제공하자는 사업이다.

남구, ‘알맹이 확보 토포학교’ 확대 운영

광주 남구는 그동안 주말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댄스와 스포츠 등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온 ‘꿈과 끼를 키우는 토포학교’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다.

2월 남구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토포학교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토포학교를 통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세계로 가는 밸런스워크아웃 ▲세대간 소통의 힘, 남구 청소년의 힘 ▲휴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꿈 ▲대중에서 배우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농악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코딩 아트 클럽 ▲학강에 울리는 스탠바이 액션 ▲우리는 플로어볼 한다 등 8가지다.

북구,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는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점검, 예방 활동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 기상전망을 토대로 올해도 장마, 태풍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우선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장, 대형공사장, 급경사 지역, 소하천, 하수도 등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신속 대처가 이뤄지도록 2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중 펌프를 비롯한 11개 품목의 자재 1550여 개를 추가 보급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는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한 주차 공간도 확보·운영한다.

광산구, ‘모기 천적’ 미꾸라지로 생태방역

광주 광산구는 1일 모기 유충을 없애기 위해 지역 내 하천, 저수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의 천적으로, 하천 및 저수지, 습지 등에 방류하면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100여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광산구는 이날 소독업 10개 소독업체와 합동으로 신창1리에 미꾸라지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풍영정천, 수완저수지, 송산유원지 하천 등 66개소에 총 260kg의 미꾸라지를 방류한다.

김옥현 광산구보건소장은 “모기가 한곳에 알을 낳는 습성을 이용하여 미꾸라지로 유충의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모기 방제 효과가 크다”며 “수질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택기자